

The Gospel of Mark

Sermon 21

Title: "A life restored and a woman healed - part 2"

Scripture: Mark 5:35-43

Date preached: January 22nd 2023**Scripture: Mark 5:35-43**

35 While He was still speaking, *some* came from the ruler of the synagogue's *house* who said, "Your daughter is dead. Why trouble the Teacher any further?"

36 As soon as Jesus heard the word that was spoken, He said to the ruler of the synagogue, "Do not be afraid; only believe." 37 And He permitted no one to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38 Then He came to the house of the ruler of the synagogue, and saw a tumult and those who wept and wailed loudly. 39 When He came in, He said to them, "Why make this commotion and weep? The child is not dead, but sleeping."

40 And they ridiculed Him. But when He had put them all outside, He took the father and the mother of the child, and those *who were* with Him, and entered where the child was lying.

41 Then He took the child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cumi," which is translated,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42 Immediately the girl arose and walked, for she was twelve years *of age*. And they were overcome with great amazement. 43 But He commanded them strictly that no one should know it, and said that *something* should be given her to eat.

35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36 예수님은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37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39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41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었다. 42 그러자 열두 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다녔다. 이것을 지켜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43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키신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자선에 대한 교훈

Review

Before we carefully consider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some time to review.

Mark picks up the story as Jesus returns from His brief, but eventful trip to the region of the Gadarenes. That region is located on the eastern side of the Sea of Galilee. So Jesus has now returned to the largely Jewish western side of the sea. As always His appearance is accompanied by large crowds. Wherever our Lord goes He is mobbed by people wanting something from Him or just clamouring to be close or touch him. Mark as I said last time skilfully weaves together the stories of two people in this crowd who want something from Jesus. Both of them are desperate after having tried every human means to solve their problems. Both of them also have faith that Jesus can help them.

The first person we meet is Jairus. He is described as being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This means that he was an important man in the community and would have been looked up to, and respected. He approached the Lord Jesus and falls at His feet. He seeks the Lord's help for his young daughter. She is very sick, literally taking her last breaths. Jairus is confident that Jesus has the power to heal his child. However his faith is somewhat measured by his superstitious belief that Jesus needs to physically lay His hands on her. We perhaps should not judge him too harshly for this. This was a commonly held belief at that time. The Jews believed that God worked through the touch of the one empowered to heal. The idea that a healing could take place from some distance was alien to them. The Lord Jesus of course was not bound by this system of healing. At times He did heal through touch, but as God He was able to heal in any way He chose. So Jesus could have just healed Jairus' daughter from a distance. However on this occasion He agrees to go to Jairus' house.

오늘의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복습해 봅시다. 마가는 예수께서 가다라인 지역으로 짧지만 다사다난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바다의 대부분이 유대인인 서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의 출현에는 많은 군중이 동반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그분에게 가까이 가거나 만져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Mark는 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원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능숙하게 엮어냅니다. 두 사람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수단을 시도한 후 필사적입니다. 그들 모두는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그는 회당의 통치자 중 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그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존경과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어린 딸을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녀는 매우 아파서 말 그대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손을 얹어야 한다는 그의 미신적인 믿음에 의해 어느 정도 측정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그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세를 받은 자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거리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낯설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이 치유 체계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접촉을 통해 치유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그분은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동의하셨습니다.

As they are making their way accompanied by a large thronging mass of people we meet the second person seeking the Lord. It is a woman and sadly her name is not recorded for us. Her pitiable situation is difficult for us to truly comprehend today. Thankfully we live in a country with excellent medical facilities. Doctors and medical practitioners are usually able to provide help to us when we are sick. In her case the doctors she had consulted had not been able to help. She had spent all of her savings and not only had she not recovered she was actually in a worse condition. It is impossible for us to diagnose her exact medical ailment although many believe she was suffering from chronic menstrual bleeding. We know that she had suffered with a continual flow of blood that had lasted for 12 years. As I said last time under Jewish law this made her ritually unclean. She was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worship or in the general life of the community. Whatever or whoever she touched also became unclean. So this was a woman you would not want to be around. This

almost certainly extended to her husband. Having a family and raising up sons was vitally important in the ancient world. This woman's condition meant she was unable to do this. It is highly likely then that her husband had divorced her. We used to play a game at school called "lurgee." It was basically a game of catch or tag. The term "lurgee" represented some horrible contagious disease. The person designated to possess the "lurgee" would try to catch someone else and transfer this vile disease on to them. This woman had possessed the "lurgee" for 12 years and had no way of passing it off. She would have been alone and living a very lonely life. She came to the Lord Jesus as her last hope.

Many people today live lonely and isolated lives. Sometimes it is by choice but more often it is because of life circumstances. Their husband or wife may have died. Their children or other family members may have moved away. They may just struggle to make friends or acquaintances. Perhaps you have neighbours like this. Why not extend to them the hand of Christian friendship. Why not through your act of kindness demonstrate to them the lov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So this woman had heard all about Jesus. The news of His amazing healing powers had spread far and wide.

She firmly believed that He was a man with great healing power. It was so great that just touching His clothing would be enough to heal her. She makes her way through the crowd and when she is close enough reaches out to touch the Lord's clothing. What happens next is dramatic. She feels the flow of blood dry up, instantly she is healed and made whole. The Lord Jesus senses that something has happened. Many people are bumping and jostling Him but He knows that He has been touched in a special way. This is because He senses that some power has gone out of Him. He looks around to see who it is that has touched Him. The disciples who do not know that a woman has been healed think Jesus had lost His mind. Of course people have touched him they're in a large crowd. Eventually the woman realises that she has been caught. Trembling and fearful she comes and falls at Jesus feet.

She may have thought that Jesus was going to rebuke her. As someone who was ritually unclean she should not have been touching people. This however was not the Lord's intent. He wanted to reassure her that she truly was fully healed and also that it was her faith in Him that had made the healing possible. Whilst all this was going on Jairus was standing nearby. It is not stated in scripture but probably he felt frustrated or annoyed by this delay. It is his story we will pick up after we have prayed.

그들이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여성이고 슬프게도 그녀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불쌍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훌륭한 의료 시설을 갖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와 개업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 그녀가 상담한 의사들은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축한 돈을 모두 썼고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나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만성 월경 출혈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정확한 의학적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12년 동안 계속되는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유대 율법 아래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그녀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나 공동체의 일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진 것이나 누구든지 또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주변에 있고 싶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히 남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었습니다. 이 여성의 상태는 그녀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이 그녀와 이혼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lurgee"라는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기 또는 태그 게임이었습니다. "lurgee"라는 용어는 끔찍한 전염병을 나타냅니다. "lurgee"를 소유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이 사악한 질병을 그들에게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 여성은 12년 동안 "Lurgee"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속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택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삶의 환경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편이 나 아내가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이 이사를 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친구나 지인을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우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친절な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우리 주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치유 능력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큰 치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치유될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손을 뻗어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극적입니다. 그녀는 피의 흐름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즉시 치유되고 온전해집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때리고 밀치고 있지만 그분은 자신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져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둘러보십니다. 여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를 만졌다 그들은 큰 무리에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를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사람들을 만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진정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치유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임을 안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야이로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이러한 지연에 대해 좌절하거나 짜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집어들게 될 그의 이야기입니다.

35 While He was still speaking, *some* came from the ruler of the synagogue's house who said, "Your daughter is dead. Why trouble the Teacher any further?"

Jairus had implored or begged Jesus to come quickly. The situation with his daughter was critical. She was very literally taking her final breath. Therefore he must have been frustrated that Jesus was held up by the woman with the flow of blood. No doubt he wanted to pull Jesus's sleeve and hurry Him along. We can only imagine then how he felt when some of his household staff arrived to deliver the worst possible news. His daughter had been at death door but now she had passed through it. It was all too late. There was now no need to trouble Jesus (the teacher) any longer. He might have been able to help but not now. In normal circumstances this would be true. As the saying goes whilst there is life there is hope, but when life has gone so too goes hope. When someone is critically ill we urge the doctor to hurry. Once they have died we no longer need the services of a doctor. But not of course things were very different in this situation. Let's read on.

야이로는 예수님께 속히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의 딸과의 상황은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혈루증 있는 여인이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예수님의 소매를 잡아당기

고 그를 재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원 중 일부가 최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딸은 죽음의 문 앞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삶이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삶이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의사에게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일단 그들이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의사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시다. 계속 읽어 봅시다.

36 As soon as Jesus heard the word that was spoken, He said to the ruler of the synagogue, “Do not be afraid; only believe.”

Jesus hears the message that is delivered to Jairus. It is the moment for the great teacher to impart some inspiring words. He tells Jairus to do two things. The first is that he is not to be afraid or have fear. His great fear is understandable. It is that his precious and beloved daughter is now lost to him. That he will never again see her smile or enjoy her company. I hope you value and appreciate the company of your children. When our children are young we often find them a nuisance. They have too much energy and exhaust us. But really how fleeting those times are. Soon they grow up and the relationship changes. But it still remains precious and worth cultivating. I encourage you therefore to make the time to enjoy the company of your children.

The Lord Jesus knows that Jairus' fear is unfounded. So the second thing he tells Jairus to do is believe. Jairus already showed faith in coming to Jesus. He believed that Jesus had the power to help his daughter.

So when Jesus tells him to “only believe” He is telling him to continue believing. To not give up hope. What an important reminder that is to us today. When we look at the darkness of the world around us we sometimes experience a crisis of faith. Our belief wavers and we begin to think that the darkness is gaining the upper hand. This is just temporary. God is ultimately sovereign. So when we such feelings we should remember the words of our lord and Saviour. Do not be afraid; only believe. Let us continue.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전해진 소식을 들으십니다. 위대한 스승이 영감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야이로에게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큰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중한 사랑하는 딸을 이제 그에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그녀의 미소를 보거나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정말 덧없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성장하고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귀중하고 재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야이로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야이로에게 두 번째로 하라고 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딸을 도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어두움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주와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 하지마; 단지 믿는다. 계속합시다.

37 And He permitted no one to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Jesus here permits only those members of his inner circle of disciples to come along with him. I am speaking of Peter, James and John. It was these three men that formed the closest connection with our Lord and savior. These three men would also be with Jesus at the Transfiguration (9:2) and also be closest to him at Gethsemane (14:33).

Given the bible's silence we are left to speculate as to why only these three were allowed to witness this particular miracle. Perhaps Jesus wanted to try and minimise or control the publicity He would get. The people already clamoured for His attention. How much greater would it become if they knew He could raise the dead. Perhaps it was for a more practical reason. He did not want to bring a crowd of strange men into the girls room which may overwhelm or frighten her. Or possibly it was something to do with the character or nature Peter, James and John. Maybe they were more perceptive or more responsive to Jesus teaching.

We should remember that these three men would later have important leadership roles they would later occupy in the early church. So probably Jesus special attention is aimed at preparing them for their future work. Leaving the other behind it is this group that goes to Jairus' house.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부 집단의 구성원들만이 그와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구세주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9:2), 또한 겔세마네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14:33). 성경의 침묵을 감안할 때 왜 이 세 사람만 이 특별한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 추측해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얻게 될 홍보를 최소화하거나 통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더 위대할까요. 아마도 더 실용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압도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는 낯선 남자 무리를 여자 방으로 데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나 본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민감하거나 반응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초대 교회에서 맡게 될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그들이 미래의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을 남겨두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일행입니다.

38 Then He came to the house of the ruler of the synagogue, and saw a tumult and those who wept and wailed loudly. 39 When He came in, He said to them, "Why make this commotion and weep? The child is not dead, but sleeping."

When Jesus arrives at the house He is greeted by loud moaning and wailing. When a child dies it is a most tragic and terrible event. We therefore would expect her family to be greatly distressed. But Mark here is referring to professional mourners. This is one of the things we read about in the scriptures that particularly strikes us today as being strange. We think of death as being a private family affair. In the west at least we don't like to share our grief with strangers.

Imagine if it was your job to be a professional mourner. To have to go to someone's house and pretend to be incredibly sad and emotional. But whatever we may think of this practice it was the Jewish custom of the first century. Paid mourners would be summoned whenever there was a death. Their purpose was to add to the atmosphere of grief and pain. In order to achieve this they would weep, wail, sing, play flutes, and clap their hands. That they were there at the house already when Jesus arrived indicates just how sick this little girl had been. There had been the expectation that

soon she would die.

When the Lord Jesus arrives He puts an end to all this noise. His question to the mourners is a simple one. Why are you making a noise fit for the dead when this girl is only sleeping? The Lord Jesus is using “sleep” here in the figurative sense. What He is telling them is that though she was dead to her death would be just like sleep. Something you could be awoken from. Let us see how these mourners respond.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큰 소리로 통곡하며 영접하셨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은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의 가족이 크게 괴로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가는 전문적인 애도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전에서 읽은 내용 중 오늘날 특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적인 가족 문제로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적어도 낯선 사람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문 애도자가 되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슬프고 감정적인 척해야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관행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1세기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유급 조문객은 사망할 때마다 소환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슬픔과 고통의 분위기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울고 통곡하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손뼉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이미 집에 있었다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아팠는지 보여줍니다.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주 예수께서 오시면 이 모든 소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애도자들에게 던지는 그의 질문은 간단하다. 이 여자가 잠만 자고 있을 때 왜 죽은 자에게 어울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까?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가 죽었더라도 그녀의 죽음은 잠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수 있는 것. 애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40 And they ridiculed Him. But when He had put them all outside, He took the father and the mother of the child, and those *who were* with Him, and entered where the child was lying.

The response of the mourners is to laugh at, or ridicule the Lord Jesus. They were professional mourners if anyone knew what a dead person looked like it was them. They clearly thought that Jesus had no idea what He was talking about. The Lord responded by telling them to go outside. These people would not be privy to what Jesus would do. This miracle would be performed before a select few. The girl's parents, Peter, James and John. This group enters the place where the girl's body lay. We are about to witness a miracle. Let us read on.

슬퍼하는 자들의 반응은 주 예수님을 비웃거나 비웃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들처럼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전문적인 애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실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선택된 소수 앞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소녀의 부모인 피터, 제임스, 존. 이 그룹은 소녀의 몸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41 Then He took the child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cumi,” which is translated,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42 Immediately the girl arose and walked, for she was twelve years of age. And they were overcome with great amazement.

Jesus took the child by the hand. This was not strictly necessary but Jesus probably did it so that the onlookers associated the healing with Him. You might remember some Old Testament prophets bringing dead children back to life. Both Elijah (1 Kings 17:17-23) and Elisha (2 Kings 4:18-37) had raised children to life. However if you read their accounts you will note that they had to expen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do so. For the Lord Jesus it was sufficient for Him to

speak to her. Mark here preserves the actual Aramaic words Jesus used. This was most likely the everyday language that Jesus and His disciples used. They would also have been familiar with, and probably spoke Greek and Hebrew. Remember that Mark was writing for a Gentile, audience probably in Rome. He therefore gives them a translation. Jesus words are,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We should not miss the significance of these words. I said before that the Lord Jesus described this girls condition as being asleep. What the Lord says to her here are the kinds of words a mother or father would say to arouse a sleeping child.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Honey, it's time to wake up." So what Jesus is really showing us through this act is if His loving hand is upon us we have nothing to fear not even death.

The response from the girl is immediate, She not only returns from the dead but her strength is fully restored. She is able to walk. It is not clear why Mark tells us the girls' age. Twelve in my mind is not a "little girl" and this was especially true in antiquity. Life spans in general were much shorter than today. In fact 75% of the population did not reach the age of 30.

We might also note that girls were able to marry in Jesus day as soon as they began to menstruate. So this little girl could have been married a year or two after being raised from the dead.

I think Mark includes her age being 12 because he wants to draw our attention to it occurring in both miracle accounts. The woman had bled for 12 years and this girl was 12 years old.

The girls parents are overcome with amazement. Their beautiful daughter was restored to them. What a truly wonderful moment it must have been. Let us conclude our study today by looking at verse 43.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구경꾼들이 치유를 그분과 연관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어린이를 다시 살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엘리야(열왕기상 17:17-23)와 엘리사(열왕기하 4:18-37)는 모두 자녀를 생명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가 사용한 실제 아람어 단어를 보존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일상적인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익숙했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청중인 이방인을 위해 글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번역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전에 주 예수께서 이 소녀의 상태를 잠들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잠자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녀의 힘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걸을 수 있습니다. Mark 가 소녀의 나이를 말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의 12는 "어린 소녀"가 아니며 고대에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명은 오늘날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실제로 인구의 75%가 30 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녀들이 월경을 시작하자마자 예수 시대에 결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 소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 1년 또는 2년 후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가가 그녀의 나이를 12살로 포함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두 기적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이 여자는 12살이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놀라움에 압도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딸이 그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43 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43 But He commanded them strictly that no one should know it, and said that *something* should be given her to eat.

The account concludes with the Lord Jesus issuing two commands to the parents. The first is that what has just happened is not to be widely broadcast. They are to keep this miracle quiet. We have seen this before in Mark's gospel. Some of the people the Lord has healed are told to go away and keep the miracle a secret. In this case it is highly unlikely that it would remain a secret for long. Soon everyone would know what had happened to Jairus' daughter. Despite this Jesus wanted to at least try to limit the spread of this miracle. This is probably because He wants the freedom to continue His ministry.

The second thing the Lord tells the parents is that they are to feed the child. This may be to confirm to them that she is fully restored. She is not a ghost or a vision but a real flesh and blood child that needs food. However it may also serve to remind the parents that though a miracle as occurred they are from now on to love and care for her as before. Whatever had brought on this illness may reoccur. They are to provide for her needs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Remember God has blessed us with common sense and He expects us to use it.

이 기록은 주 예수께서 부모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널리 방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중 일부는 떠나서 그 기적을 비밀로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적어도 이 기적의 확산을 제한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분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부모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아이를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그들에게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음식이 필요한 진짜 살과 피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이전처럼 그녀를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을 초래한 것이 무엇이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의 필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There is no need to fear

The two miracles we have just finished examining remind us of an important truth. The truth is that Jesus has complete power over disease and death. As we get older those are two things that begin to concern us more frequently. When we are young, fit and healthy we rarely think about ageing and the aches and pains associated with getting older. We also rarely think about death. It's something that lies a long way away. But as we watch the years flash by we begin to worry much more about disease and death. It's understandable that we do. Disease and sickness mean we cannot necessarily live the lives we want. We may have to rely on the help or assistance of others. So I think we should read this section of Mark's gospel and take comfort. During His earthly ministry Jesus met and helped all kinds of people. From the children of rich and powerful men to women who were ostracised and shunned. That means He is equally able to help you and me. His love and concern for us does not depend on our social status or wealth. This does not mean that God will always come to our rescue. Or that He will heal every affliction or illness we have. But what it does mean is

something very important. What it means is that He holds ultimate authority over all things; including disease and death. For this reason we need not fear.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진실은 예수께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자주 염려하기 시작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노화와 노화와 관련된 통증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질병은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원조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읽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 사역 동안 예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도우셨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의 아이들부터 배척당하고 기피당한 여자들까지. 그것은 그분이 당신과 나를 동등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구하러 오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그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이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만물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Your need will never be an interruption to Jesus

We cannot read Mark's gospel without getting a sense of Jesus extreme busyness. The Lord Jesus knew that His time on earth was going to be short. There was much to do and so every day was taken up with work. When we are busy and working most of us do not like to be interrupted.

Imagine that your boss at work has given you a task to complete. The very last thing you want is for someone to come along and ask you to stop what you are doing. So we might think that Jesus was equally annoyed when His world changing mission was interrupted by people like the woman with the blood flow or Jairus. When compared to establishing the church and saving mankind the needs of these normal people are surely insignificant. If we think this then we are completely wrong. The Lord Jesus never viewed these simple people as annoying diversions. He was pleased that they had faith in Him, and that they came to Him in their time of need. The same applies to us today. We should not think that our small worries or issues are unimportant to God. We should not think that He will be uninterested or that we are diverting Him away from more pressing matters. No, God wants us to take all our needs to Him. Doing so show Him that our faith rests in Him completely. That we recognise that without Him we are essentially weak and powerless.

So let me leave you today by reminding you how much God loves you. He wants you to take your burdens and place them upon Him. He will never scold or rebuke you for doing so. Instead He will love and pour out His grace and mercy upon you.

우리는 예수님께서 극도로 분주하시다는 느낌 없이는 마가복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 일이 많았고 그래서 매일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일할 때 우리 대부분은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에게 완료해야 할 작업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분의 사명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야이로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방해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짜증을 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

회를 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정상인의 필요는 확실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단순한 사람들을 성가신 기분 전환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걱정이나 문제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관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분을 더 시급한 문제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께 보여 주십시오. 그분 없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기시켜 드리며 여러분을 떠나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꾸짖거나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